

겐고시즈카(牽牛子塚) 고분 [다카이치군(高市郡) 아스카촌 고시]

겐고시즈카 고분은 아스카(明日香)촌 오아자(大字) 고시(越)에 위치하는데 긴테쓰(近鉄) 요시노(吉野)선의 아스카(飛鳥)역에서 서쪽으로 도보10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다. 한 변 길이가 약22m, 높이가 4.5m이상의 팔각분으로 분구 끝자락에는 응회암의 마름돌을 돌아가며 깔았고 분구 서쪽에는 자갈을 깔 것이 확인되었다. 매장시설에는 거대한 응회암을 파내 두 개의 묘실을 만든 횡구식(橫口式) 석곽이 마련돼 있다. 4곳에 장식금구가 붙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석을 안쪽 막음돌(閉塞石)로 하고 그 바깥쪽에도 세로 길이 245cm, 가로 약 270cm의 막음돌을 놓아 이중으로 막아 놓았다. 각 묘실에는 관대가 마련돼 있고 그 규모는 동곽이 길이 195.5cm×폭 81.5cm, 서곽이 길이 195.0cm×폭 80.0cm로 거의 같은 크기이고 모두 성인의 관에 맞춘 규모이다. 석곽 안에서는 협저(夾紵)관이나 칠보기갑(七宝龜甲)형 관좌(棺座) 금구, 금동제 팔화문좌(八花文座) 금구, 다량의 유리구슬 등과 함께 인골도 출토되었다. 잔존하는 치아를 분석했는데 피장자 한 명은 30~40세이고 성별을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계측치는 여성의 평균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또 최근에 겐고시즈카 고분의 동남쪽에서 새로운 횡구식 석곽(고시쓰카고몬(越塚御門) 고분)이 확인되었다.

겐고시즈카 고분은 천황릉에 채택되는 팔각분이고 매장시설은 한 개의 석재를 파내서 두 개의 묘실을 만든 횡구식 석곽으로 축조 당초부터 합장을 의도한 점, 그리고 「오치(小市)(=오치(越智))」에 관계가 있는 고시(越)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『일본서기』 덴지(天智) 6년(667) 2월 무오(戊午) [27일] 조에 사이메이(齊明) 천황과 하시히토(間人) 황녀를 합장한 오치노오카노우에노미사사기(小市岡上陵) 능 앞에 오타(大田) 황녀를 매장했다는 기사와의 관련이 주목 받고 있다.

겐고시즈카 고분의 발굴조사는 대정(大正)시대부터 이루어졌는데 대정 12년(1923)에는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평성(平成) 26년(2014)에는 고시쓰카고몬 고분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사적명이 「겐고시즈카 고분·고시쓰카고몬 고분」으로 변경되었다. 또 대정 3년(1914)의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나라현립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.